"갖가지 화폐 구경 오세요"

화폐수집가인 박용권 '동국화폐사' 대표가 2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2동 사무소에서 화폐 무료 전시회를 연 가운데 관람객들이 희귀 화폐를 살펴보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전시회에는 박씨가 소장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돈인 중국 주나라의 '골폐화' 등 200여점이 선보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3월 교육비 등 서민물가 급등

작년보다 광주 대학납입금 10% ·학원비 18% 상승

새학기를 맞아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월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04.2, 10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광주·전남의 물가가 각각 2.6%, 2.2% 상승한 것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비가 1년 전보다 각각 6.4%, 7.4% 뛰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경우 대학 납입금이 1년 전보다 10.2% 오른 것을 비롯, ▲대입학원비(18.1%) ▲자동차학원비(23.9%) ▲시내버스료(18.6%) ▲전철료(12.5%) ▲하수도료(7.1%) ▲대리운전이용료(25%) 등의 물가가 급등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고등학교 납입금이 22.2% 올랐으며, ▲대입학원비(15.6%) ▲자동차학원비(16.7%) ▲하수도료(13%) ▲택시료(11%) ▲상수도료(10.8%) ▲가전제품수리비(17.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의 납입금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1년 전보다 각각 2.6%, 3.3% 올랐다.

납입금 상승률은 ▲유치원(9.3%) ▲고등학교(4.2%) ▲전문대학(7.5%) ▲사립대학교(7.5%) ▲국공립대학교(9.0%) ▲보육시설이용료(9.0%)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2% 오르면서 2004년 1월 6.3% 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집세는 전세가 올랐지만 월세는 보합을 유지해 지난해 3월에 비해 1.7% 상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산·학·연-러 손잡고 '메카노 신기술' 본격 개발

순천대에 연구소 개소… 연간 3,000억 매출 기대

전남지역 산·학·연이 러시아 연구소와 손잡고 미래 기술인 '메카노케미스트리(Mechanochemistry)' 연구 개발에 나섰다.

2일 전남도와 순천대에 따르면 이날 순천대 7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박준영 지사, 장만채 순천대 총장, 니콜라이 랴호프 러시아 메카노케미스트리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러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순천대 전남테크노파크에 설립된 메카노케미스트리연구소는 오는 2012년까지 국비 30억원을 비롯, 도비(10억원), 러시아측 부담금(6억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참여기업 부담금 등 총 사업비 50억여원이 투입된다.

연구인력은 30명으로, ▲태양복사에너지의 변환과 고밀도 열에너지의 축적기술 ▲나노 분말을 이용한 금속과 합금 변형기술 ▲아스피린 변형기술 ▲농업용 온실필름 빛발산 첨가제 ▲효과적인 자동차 열규제 코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게 된다.

특히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은 최근 국제적인 미래 기술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 결과물이 사업화될 경우 30여개 연관 기업 유치와 연간 3천억원의 매출, 5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이 기술은 주로 철강, 표면처리, 생물산업 등의 기반기술에 활용되며, 현재 국내에서는 미개척 분야지만 미국·일본·독일·러시아 등에서 활발한 연구로 결과물이 사업화 단계에 있다.

전남도와 순천대는 이 기술을 생물·신소재·제철·화학·조선산업 등과 연계해 기능성 식품, 부품소재, 절약형 에너지 소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첨단 신기술의 우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대 나노신소재응용공학부 반봉찬 교수는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을 도입할 경우 기능성 의약제품과 식품, 친환경성 기능 소재 등의 개발이 가능하다"면서 "전남지역의 기능성 소재 산업육성과 함께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천대는 지난해 반 교수팀이 제안한 '메카노케미스트리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 친환경성 기능소재 개발'로 과학기술부의 '글로벌파트너쉽프로그램 2006'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전남도도 지난 2005년 박 지사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주 메카노케미스트리 연구소를 방문해 한·러간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소 개소에 산·학·연이 공동보조를 취해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메카노케미스트리= 100만분의 1을 뜻하는 마이크로(㎛) 단위로 분쇄한 미분체에 활성화를 주어 입자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로, 고체물질에 기계적 에너지를 가해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법이다.

카드회원 1명 모집 4만 5,000원 쓴다

카드사, 작년 2,400억 사용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의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사들이 카드 모집에 쓴 비용도 2천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2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전업카드사(비씨카드 제외)가 회원 모집에 사용한 비용은 2천402억9천500만원으로 2005년의 1천660억원에 비해 44.9%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5개 카드사의 회원수가 3천962만8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33만7천명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회원 1명을 모집하기 위해 평균 4만5천17원을 쓴 셈이다.

카드사별로는 LG카드가 691억2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모집비용을 썼으며 이어 현대카드 527억4천200만원, 롯데카드 523억7천800만원, 삼성카드 338억2천500만원, 신한카드 322억2천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모집 비용의 급증은 카드 모집인 수 증가로 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보조금 더 드립니다"

내달부터 규제 완화

다음달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대부분 풀려 휴대전화 구입 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정보통신부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제도의 시행 기간이 내년 3월로 폐지되는 것을 앞두고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일 금액이 아닌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보조금 밴드(ban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조금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는 최대 13만원까지 보조금이 늘어난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고 공정경쟁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한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러한 보조금 제도 완화 조치에 따른 시장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한국 광산업 진흥회 전영복 부회장 취임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www.kapid.org, 회장 이기태) 상근부회장이 3일 제 3대 상근부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전 부회장은 지난 99년 광주시 경제통상국장 재직시 현재의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계획을 입안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 한국광산업진흥회 초대 전무이사를 거쳐 제 2대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해오면서 한국광산업진흥회를 국내 유일의 광산업체 권익보호 및 공동이익도모 사업자단체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 /이종태기자 jtlee@

여수에 친환경바이오 생산 공장

쓰리엠안전개발 투자 협약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친환경바이오디젤 생산공장이 들어선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디젤생산업체인 쓰리엠안전개발㈜과 바이오디젤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 설비 시설과 저장 탱크를 갖춘 바이오디젤생산 공장은 160억원을 들여 여수산단확장단지내 5천여평에 2008년까지 건립된다.

공장이 준공되면 연간 15만t의 친환경 바이오디젤을 생산, 대형 정유사에 제공하게 되며 정유사는 원유 절감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차량 연료에 바이오디젤(0.5%)을 섞어 사용하게 된다.

바이오디젤은 대두유, 유채유, 해바라기유 등 식물에서 추출되는 기름을 주원료하는 황분 및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수송용 연료로 지구온난화와 관련, 석유 대체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광양시, 세계적 파형강관공장 유치

픽슨·암텍사 400만 달러 투자

광양에 세계적인 파형강관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광양시는 "3일 시청 상황실에서 파형강관 제조기업인 ㈜픽슨과 파형강관 업계 세계2위인 캐나다 암텍과의 합작법인 설립 조인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

조인식에 이어 픽슨과 암텍사는 각 200만 달러를 투자해 옥곡면 신금산단 내에 설립한 ㈜픽슨-암텍 파형강관 공장 준공식을 조만간 갖는다.

이에 따라 픽슨-암텍 합작법인은 연간 1천억원의 국내시장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호주 등 1조원대의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 5년 동안 최소 5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투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업체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